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배한진¹⁾ 허청아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정환경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유형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와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986개 가구를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유아기 가정환경은 총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유아기 가정환경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교육 등 가정환경 차원의 예방적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가정환경,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큰 환경 변화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들은 위계적이고 경쟁적이며, 교과 중심적이고 규칙과 집단생활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최지영·양현주, 2012).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은 집단생활로 인한 또래관계

* 이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8.11.23.)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스트레스, 생활 규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김정효·박효정, 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이 교사 및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홍애순·조규판, 2014; Carlson, Sroufe, Collins et al., 1999; Kupersmidt & Coie, 1990; Sturge-Apple, Davies, & Cummings, 201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부부관계,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응집성, 가정환경자극,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등 아동 특성 및 가족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지원·공윤정, 2012; 박성혜·윤종희, 2013; 장혜진·김은설·송신영, 2014; 장혜진·윤혜미, 2010; 정미영·문혁준, 2007; Sturge-Apple et al., 2010). 박성혜와 윤종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학교적응수준이 더 높고,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과 문혁준(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 등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 김은설과 송신영(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원과 공윤정(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정환경이다. 가정환경은 아동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차적 환경이며 초기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특히 유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이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설경옥·문혁준, 2011). 예를 들어 Bloom(196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나 인지 등 측정된 지능 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 환경이며,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될 때 아동 간 차이는 가정환경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구성 개념에 대한 연구는 Caldwell과 Bradley(1979)의 가정환경자극검사(HOME)로 대표되는 가정환경자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환경자극검사는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질과 양, 부모가 제공하는 발달적 자극 등을 측정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학습환경의 질을 평가한다. 언어자극, 부모의 반응성, 정서적지지 등의 가정환경자극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radley & Caldwell, 1984). Nihira, Meyers와 Mink(1980)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구조가 동일한 경우에도 가정환경자극의 양에

가족 간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가 아동간 발달의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정환경의 구성요소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족의 응집성과 같은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적 환경으로서의 가족 체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은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주로 발견된다(Cox & Paley, 1997). 예를 들어 부부간 불화와 갈등과 같은 부부 하위체계의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자녀간 하위체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을 가정환경자극과, 가족의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가정환경자극은 초등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 하나이다(Cooper, Crosnoe, Suizzo, & Pituch, 2010). Van Doorninck, Caldwell, Wright와 Frankenburg(1981)의 연구에서 영유아기 가정환경자극점수 낮음으로 분류된 집단의 경우 높음으로 분류된 집단에 비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과 윤혜미(2010)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자극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성연(2002)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환경, 발달을 위한 자극 등의 가정환경자극이 학령 전 아동의 학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준비도가 이후의 학업성취 및 주의 집중, 문제행동 등에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Romano, Babchishin, Pagani, & Kohen, 2010) 가정환경자극이 초등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가정환경 및 관계의 질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Davies, Winter, & Cicchetti, 2006). Wulfsohn(2000)의 연구에서는 만 3세 때의 부모 역할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rge-Apple 등(2010)의 연구에서는 3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기 가정환경이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전이기에 특히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부간 적대수준이 낮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수준이 높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협력성이 높은 응집적(cohesive)인 가족이 유리된(disengaged) 가족과 밀착된(enmeshed) 가족에 비해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값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낮으며 수업 참여의 어려움 및 학교에 대한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 역시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부부갈등 등 부부관계의 질에 역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Ablow(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것이 남아의 불안과 스트레

스, 여아의 자기 비난 및 학교에서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부관계 등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관계가 아닌 가족의 전반적인 관계 역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Johnson(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구성원의 관계, 가족 구조, 가족 구성원의 성장 지원 등 가족 단위에서 측정된 초등학교 입학 전 가족 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업 능력과 문제행동 등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가족응집성 등 가정환경 특성의 경우 가족 내의 다양한 체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족은 부모-자녀, 부부, 형제관계 등 다양한 하위구조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이며,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하위 체계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Cox & Paley, 1997). 이러한 가족 하위 체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각 체계의 특정 측면을 변수화하여 살펴보는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은 하위 체계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Sturge-Apple et al., 2010). 사람 중심적 접근 방법의 일종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각 변수에 대한 응답 패턴을 토대로 동질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분류하는 연구방법으로 각 하위체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족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 혹은 부-자녀, 모-자녀의 양자로 구성된 가족 하위체계의 상호작용(dyadic family interaction)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로 구성된 삼각관계의 상호작용(triadic family interaction)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Venturelli, Cabrini, Fruggeri et al., 2016). Venturelli 등(2016)은 발달과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주로 모-자 관계를 연구하거나 부-자 관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삼각관계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서 연구하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삼각관계는 각각의 양자 관계의 합보다 더 크고 복잡한 맥락이며 삼각 가족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삼각관계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가족 동맹, 가족 응집성 등 가족 특성을 측정하거나, 각 개인의 특정 상호작용 행동을 살펴보는 방법, 자녀에 대한 부부의 공동양육과 같은 2인+1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3자 관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자 관계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각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모가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평가하는 가족 응집성 및 유연성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자극을 조사원이 평가한 가정환경자극을 활용하여 삼각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양자적 가족 관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자녀, 모-자녀 등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양육태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환경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일방의 응답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자료(dyadic data)의 이점을 살려 동일한 특성에 대한 부부 각각의 응답을 함께 활용한다면 부부 각각의 관점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Wittenborn, Dolbin-MacNab, & Keiley, 2013). Meteyer와 Perry-Jenkins(2009)의 연구에서는 부부 각각의 양육태도를 균집화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부부의 양육태도의 혼합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강점을 반영하기 위해 부부갈등, 결혼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의 경우 부부 각각의 응답을 모두 활용하여 가정환경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정환경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유형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유아기 가정환경을 분류했을 때, 유아기 가정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기 가정환경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기 가정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의 7차년도(2014년),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기 각각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분석을 위해 7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가구 중 7차년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환경과 관련된 문항 중 어떠한 문항에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였으며, 8차년도에 학교적응과 가구소득이 미응답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

된 연구대상은 986개 가구이다. 조사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7차년도 조사 시점 기준 각각 39.25세($SD=4.02$), 36.80세($SD=3.71$), 조사가구의 아동의 평균월령은 7차년도 조사시점 기준 75.08개월($SD=1.41$)이며, 이 중 남자는 504명(51.1%)이다.

2. 측정도구

가.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유아기의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우선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를,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을,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유연성을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 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유용한 지지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EC-HOME(Caldwell & Bradley, 2003)의 8개 하위영역인 수용성, 학습자극, 학습자료, 언어자극, 모방학습, 물리적 환경, 반응성, 다양성을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두 차원 각각을 구성하는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차원

가족관계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족관계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변수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부부 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8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부부갈등의 평균점수를 각각 투입하였다.	(부) .912 (모) .918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ung(2004)의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4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투입하였다.	(부) .930 (모) .930

변수	측정 및 조작화	Crobach's α
부모-자녀 관계	온정적 양육	(부) .858 (모) .872
	통제적 양육	(부) .790 (모) .745
가족 전체 상호작용	가족 응집성	(부) .886 (모) .871
	가족 유연성	(부) .834 (모) .812

2) 가정환경자극 차원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해 Caldwell & Bradley(2003)가 개발한 HOME 척도를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C-HOME: Early Childhood HOM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의 하위영역,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면접 문항과 21개의 조사원 관찰 문항, 10개의 면접/관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과 1점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및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가정환경자극 차원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및 문항 구성

하위영역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문항 구성
수용성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면접(1), 관찰(3)
학습자극	부모가 유아의 지식·기술 습득을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 정도	면접(5)
학습자료	학습에 대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포함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	면접/관찰(8), 면접(3)
언어자극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는 정도	면접/관찰(1), 면접(4), 관찰(2)
모방학습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부모 행동의 모델링	면접(4), 관찰(1)
물리적환경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 정도	관찰(7)
반응성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	면접(1), 관찰(6)
다양성	유아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족의 생활 방식	면접/관찰(1), 면접(6), 관찰(2)

나.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지성애·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4개 하위영역의 총 35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웹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학교적응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하위영역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	Cronbach's α
학교생활 적응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을 의미하며,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59
학습수행 적응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등을 의미하며,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45
또래적응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을 의미하며,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44
교사적응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을 의미하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3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정환경을 분류하고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크게 두 가지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Mplus 6.12 프로그램을 이용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es: LPA)을 실시하여 유아기 가정환경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분류의 질 값과 함께 모형비교 검증을 통해 잠재프로파일의 적합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정보지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Sample-sized-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a) 값을 포함한다. 이 정보지수 값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지만,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정보지수들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잠재 집단의 수를 늘려갈수록 수치가 감소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이러한 정보지수 값의 특성으로 인해 분류의 질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각 개인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오류가 적음을 의미한다.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비교 검증을 위해 조정된 차이검증(LMR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을 이용하였다. 두 지수는 $n-1$ 개의 집단 모형에 비해 n 개의 집단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며, p 값이 유의하다면 $n-1$ 개 집단의 모형에 비해 n 개의 집단 모형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다음으로는 이렇게 결정된 유아기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Stata 13.0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기 가정환경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가. 잠재프로파일의 결정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나가며 정보지수, 분류의 질을 검증하고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보지수인 AIC, BIC, ABIC 값은 작아져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우에도 0.8 이상의 값을 보여 적절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LMR-LRT와 BLRT값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가 이전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모형은 VLMR-LRT 결과 유의확률이 0.604로 나타나 4개인 모형에 모형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다. 다양한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4〉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AIC	39781.190	38154.518	37146.524	36532.447
BIC	40079.703	38555.798	37650.571	37139.260
ABIC	39885.966	38295.363	37323.440	36745.433
Entropy	0.878	0.925	0.897	0.943
VLMR-LRT(p)	0.027	0.002	0.049	0.604
BLRT(p)	0.000	0.000	0.000	0.000

나. 가정환경의 잠재프로파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986개의 가구는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4개의 잠재프로파일에 각각 배치되었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쓰인 가정환경 요인들의 표준화된 Z점수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통해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8%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부, 모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높고 결혼만족도와 가족상호작용 점수가 가장 낮은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하며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관계취약·자극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4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부, 모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낮고 결혼만족도와 가족상호작용 점수가 가장 높은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우수하며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관계우수·자극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도 역시 전체 분석대상의 약 4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가족관계 차원과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모두 보통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관계보통·자극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잠재프로파일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였지만, 학습자극, 학습자료, 언어자극의 점수가 눈에 띄게 낮은 등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네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관계보통·자극취약’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의 경우 물리적 환경, 모방학습, 수용성 등은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하지 않지만, 학습자극, 학습자료, 언어자극, 반응성, 다양성 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극과 언어자극의 경우 “아동에게 색깔을 가르친다”, “아동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등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양성은 “아동은 지난 일 년 동안 박물관에 간 적이 있다”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다. 즉,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거나 함께 활동을 하는 점에서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주거 공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물리적 환경,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제지를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수용성 등 표면적인 가정환경자극에서는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거나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등의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5〉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7차년도	관계취약·자극보통 <i>n</i> = 75 (8%)		관계우수·자극보통 <i>n</i> = 432 (44%)		관계보통·자극보통 <i>n</i> = 438 (44%)		관계보통·자극취약 <i>n</i> = 41 (4%)	
	Z점수	SD	Z점수	SD	Z점수	SD	Z점수	SD
(모)부부갈등	1.84	.87	-.68	.57	.35	.75	.07	.95
(부)부부갈등	1.70	.96	-.65	.66	.38	.75	.05	.98
(모)결혼만족도	-1.95	.91	.61	.64	-.26	.72	-.10	1.07
(부)결혼만족도	-1.69	1.14	.63	.57	-.36	.82	-.16	.96
(모)가족응집성	-1.86	1.23	.60	.68	-.28	.68	.01	.73
(부)가족응집성	-1.98	1.13	.60	.76	-.28	.59	.00	.90
(모)가족유연성	-1.75	.96	.60	.68	-.31	.77	.04	.89
(부)가족유연성	-1.71	.99	.57	.77	-.32	.74	.23	.93
(모)온정적양육	-.77	1.32	.47	.82	-.33	.89	-.02	.85
(부)온정적양육	-1.11	1.09	.49	.85	-.33	.85	.15	.90
(모)통제적양육	-.20	1.17	.18	.95	-.13	1.01	-.19	.81
(부)통제적양육	-.14	1.12	.08	1.04	-.06	.94	.06	.90
수용성	-.04	1.10	.02	.98	.01	.97	-.26	1.24
학습자극	.06	.69	.22	.32	.18	.39	-4.35	.87
학습자료	-.20	1.26	.10	.87	.03	.92	-1.06	1.74
언어자극	-.14	1.10	.09	.82	.13	.79	-2.09	1.85
모방학습	.10	.99	.10	.97	-.09	1.02	-.27	1.00
물리적 환경	.03	.97	-.02	1.09	.03	.88	-.24	1.24
반응성	-.03	1.07	.05	1.02	.01	.91	-.67	1.38
다양성	.07	1.02	.06	.96	.02	.92	-.97	1.57

〈표 6〉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별 학교적응 비교

8차년도	관계취약· 자극보통(a) n = 75		관계우수· 자극보통(b) n = 432		관계보통· 자극보통(c) n = 438		관계보통· 자극취약(d) n = 41		F	사후검증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학교생활적응	3.80	.12	4.18	.04	4.06	.05	3.83	.14	4.96**	b > a
학업수행적응	3.71	.11	3.95	.04	3.77	.04	3.66	.12	4.76**	b > c
또래적응	3.70	.10	4.03	.04	3.95	.04	3.78	.12	4.61**	b > a
교사적응	3.82	.10	4.07	.03	3.99	.04	4.04	.09	2.72*	

* $p < .05$, ** $p < .01$, *** $p < .001$

나. 유아기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회적·구학적 변수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아기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각각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수업, 질서와 규칙, 정해진 일과,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을 의미하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환경의 경우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과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인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즉,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하면서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보통수준을 보이는 가정환경 혹은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이지만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가 우수하고 가정환경자극이 보통수준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표현이나 활동에서의 의욕성, 적극적인 자세, 과제나 준비물의 양호한 준비상태를 의미하는 학업수행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환경의 경우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과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대졸인 경우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인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낮았다. 즉, 유아기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모두 보통수준을 보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 혹은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이지만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가 우수하고 가정환경자극이 보통수준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수행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들과의 놀이, 또래와의 갈등 해결,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또래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환경의 경우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또래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또래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인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또래적응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하면서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보통수준을 보이는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가 우수하고 가정환경자극이 보통수준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또래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보다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가구소득, 가정환경의 경우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교사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교사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인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하면서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보통수준을 보이는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가 우수하고 가정환경자극이 보통수준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교사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B	SE	B	SE	B	SE	B	SE
(상수)	2.89***	.43	2.85***	.40	3.04***	.39	2.97***	.39
성별 ¹⁾	.55***	.06	.27***	.05	.35***	.05	.10*	.05
가구소득	.06	.07	.10	.07	.06	.07	.15*	.06
모 교육수준 ²⁾								
전문대졸	.12	.08	.18**	.07	.14*	.06	.00	.06
대졸	.19*	.07	.14*	.07	.13	.07	.02	.06
대학원졸 이상	.26*	.13	.27	.14	.30*	.13	.06	.12
유아기 가정환경 ³⁾								
관계보통·자극보통	-.11	.06	-.17**	.06	-.07	.05	-.07	.05
관계취약·자극보통	-.35**	.11	-.19	.11	-.30**	.11	-.22*	.10
관계보통·자극취약	-.31*	.15	.27*	.13	-.22	.12	-.01	.09
F	15.87***		6.92***		9.42***		2.52*	
R ²	.11		.05		.07		.02	

주. 가구소득은 로그변환 하였음. 준거집단: 1) 남아, 2) 고졸 이하, 3)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가정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유아기 가정환경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986개 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해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후, 회귀분석을 활용해 유아기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 및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유아기 가정환경은 총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토대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관계취약·자극보통,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속한 아동이 전체 중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에 속한 44% 아동까지 고려하면 전체 연구대상 중 약 88%에 달하는 많은 수의 아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부, 모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높고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가족상호작용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과 학습자극 점수가 눈에 띄게 낮은 등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이 전체 연구대상의 약 12%를 차지하였다. 약 12%의 아동이 가족관계 차원에서 혹은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취약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의 경우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이봉주, 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열악하지 않음에도 자녀의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족관계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자극이 학교적응,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장혜진·윤혜미, 2010; 조성연, 2002)를 고려하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과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의 가정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이 취약한 아동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환경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 관계우수·자극보통, 관계보통·자극보통, 관계보통·자극취약, 관계취약·자극보통 순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이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이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갈등,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의 질이 더 높은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이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도가 높다는 점,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이 전반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부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나타낸다. 현대 가족에게 부부관계의 질은 가족 기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이진숙·

정혜정, 2004) 질 높은 부부관계는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가족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유아기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보통수준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보통·자극보통집단의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아동에 비해 이후 학업수행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아동에 비해 이후 학교생활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기에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정환경을 경험한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 아동에 비해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의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과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과의 차이만 있을 뿐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가정환경 및 관계의 질이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avies, Winter, & Cicchetti, 2006). 학업수행적응의 경우 관계우수·자극보통집단과 관계취약·자극보통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관계보통·자극취약집단과의 차이만이 유의하였는데 가정환경자극 척도가 주로 학습자극, 학습자료 등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수행적응은 수업참여, 과제 준비 등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수행적응은 관계적 측면보다 학습과 관련된 부모의 자극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단적인 관점에서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이 학교 학습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고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홍애순·조규판, 2014; Sturge-Apple, Davies, & Cummings, 2010)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관계 교육 프로그램 등 가정 환경적 차원의 예방적 개입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변수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가정환경특성의 패턴을 이용해 가정환경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유아기 가정환경유형에 따라 학교적응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환경유형 분류를 위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양자 관계의 하위체계특성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유연성과 응집성, 가정환경자극 등 삼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환경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아동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다.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자녀의 삼각관계의 경우 부모 혹은 제 3자에 의해 평가된 특성이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특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 관점의 변인을 포함한다면 가정환경유형의 분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분류된 유형 각각에 소속된 사례수가 부족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가정환경 특성 외에도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등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지영·양현주, 2012; 이진숙, 2004).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가정환경유형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표본특정적(sample-specific)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전체 유아기 가정환경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집단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기 가정환경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환경이 우수한 집단에 비해 가족 관계가 취약한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 교사적응 수준이 낮고 가정환경자극이 취약한 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이 초등학교 시기 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홍애순·조규판, 2014),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Carlson et al., 1999; Kupersmidt & Coie,

1990) 장기적, 누적적 영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시기부터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즉,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발견한 뒤 사후적 개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기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을 통해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체계 및 보육체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뿐만 아니라 가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EC-HOME 척도는 가정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와 물리적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지, 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자극이 부족한 아동의 어려움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교사의 지도 및 교육·보육 환경에 의해 보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각 가정에 대한 적절한 개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의 개선을 위해 단순히 비용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어떠한 수준의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진단하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Head Start는 아동의 학교 준비도 향상을 위해 만 4-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자녀 학습활동과 가정 내 학습지도 전략 등을 교육하는 REDI-P 가정방문 프로그램(Research-Based and Developmentally Informed- Parent home visiting program)을 제공한다(Bierman, Welsh, Heinrichs, & Nix, 2018).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돕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독서 지도법,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법, 학습놀이 등 긍정적 양육기술을 교육한다. 실제로 유아기 REDI-P 프로그램 개입은 이후 초등학교 시점의 학업 수행능력과 사회-정서적 적응을 높이는 등 아동의 학교 준비도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erman et al., 2018).

가족관계적 측면에서도 가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보육기관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사후적인 개입을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 등 가족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특히 가정환경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여 가구 소득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가정환경 유형이 달라지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을 중심으로 가정환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를 가진 부모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 비해 학습자극을 위한 도구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녀와 미술, 스포츠, 음악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et al., 2010). 즉,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자녀의 발달을 위해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것이고 시간 자원, 즉 여유가 없을 경우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한 할애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가정환경자극이 부족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족관계 차원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 압박이 커져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행동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여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가혹하고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을 유발하여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nger, Conger, & Martin, 2010). 즉,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 및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 어떠한 가족인지 연구하고,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찾아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 아동의 장·단기적 학교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로는 Kyzer, Whiteside-Mansell, McKelvey와 Swindle(2016)이 소개한 Family Map Inventory(FMI) 도구가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족의 강점과 위험요인을 스크리닝하는 도구로, 시설 기반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을 미국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HIPPY 프로그램(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에 맞게 수정하여 대상 가정의 분위기와 맥락, 부모의 특성,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가정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진단해 취약가족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FMI의 세부 진단항목에 포함된 가족의 응집성과 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변수와도 일치한다. Kyzer 등(2016)에 따르면 FMI 도구를 활용해 가정환경을 진단하는 것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인의 확인을 돕고, 개별 가족에게 맞는 자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국내에서도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에서 가정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상균(2017)의 연구에 따르면 이 때 사용되는 사정도구는 한정된 재원규모를 고려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가정환경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취약가정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5세 이하 아동이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에서 적은 비율(약 26%)을 차지하고 있어 선제

적 조기투자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 대상가족을 사정하고, 유아기의 가정환경이 가지는 장기적인 영향을 인지하여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효·박효정(200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9(2), 233-259.
- 김지원·공윤정(2012).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 *가족과 상삼*, 2(1), 59-76.
- 박성혜·윤종희(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설경옥·문혁준(2011). 취학전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 23-40.
- 이봉주(2015). 가정환경과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0(0), 6-13.
- 이상균(2017).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9), 115-150.
- 이진숙(2004). 취학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이진숙·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장혜진·김은설·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장혜진·윤혜미(2010). 농촌아동의 가정환경자극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3, 7-36
-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7.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성연(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지영·양현주(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홍애순·조규판(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1), 45-68.
- Ablow, J. C. (2005). When parents conflict or disengage: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s' marital distress predict school adaptation. In *The Family Context of Parenting in Children's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pp. 207-226). Routledge.
- Bierman, K. L., Welsh, J., Heinrichs, B. S., & Nix, R. L. (2018). Effect of preschool home visiting on school readiness and need for services in elementary school: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pediatrics*, 172(8), e181029-e181029.
- Bloom, B. S. (1966).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for school reorganiz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1), 35-49.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 revision of the preschool scal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235-244.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84).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achievement test performance in first grade: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5(3), 803-809.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arlson, E. A., Sroufe, L. A., Collins, W. A., Jimerson, S., Weinfield, N., Hennighausen, K., Egeland, B., Hyson, D. M., Anderson, F., & Meyer, S. E. (1999). Early environmental support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1), 72-94.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 Cooper, C. E., Crosnoe, R., Suizzo, M. A., & Pituch, K. A. (2010). Poverty, race, and parental invol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Family Issues, 31*(7), 859-883.
- Cowan, C. P., Cowan, P. A., Heming, G., & Miller, N. B. (1991). Becoming a family: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 (pp. 79-109). Hillsdale, New Jersey: Psychology Press.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 Davies, P. T., Winter, M. A., & Cicchetti, D. (2006). The implications of emotional security theory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childhoo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707-735.
- Johnson, V. K. (2005).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n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In *The Family Context of Parenting in Children's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pp. 255-274). Routledge.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 Kyzer, A., Whiteside-Mansell, L., McKelvey, L., & Swindle, T. (2016). Supporting family engagement in home visiting with the Family Map Inventories. *Infants and Young Children, 29*(1), 3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eteyer, K. B., & Perry-Jenkins, M. (2009). Dyadic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symptoms. *Family Relations, 58*(3), 289-302.
- Nihira, K., Meyers, C. E., & Mink, I. T. (1980). Home environment, family adju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pplied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1*(1-2), 5-24.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 Romano, E., Babchishin, L., Pagani, L. S., & Kohen, D. (2010).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replication and extension using a nationwide Canadian survey.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995.
- Sturge-Apple, M. L., Davies, P. T., & Cummings, E. M. (2010). Typologies of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adjustment during the early 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81*(4), 1320-1335.
- Van Doorninck, W. J., Caldwell, B. M., Wright, C., & Frankenburg, W. K.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twelve-month home stimulation and school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2*(3), 1080-1083.
- Venturelli, E., Cabrini, E., Fruggeri, L., & Cigala, A. (2016). The study of triadic family interactions: the proposal of an observational procedure. *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50*(4), 655-683.
- Wittenborn, A. K., Dolbin-MacNab, M. L., & Keiley, M. K. (2013). Dyadic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1), 5-16.
- Wufsohn, S. M. (2000). Children's adjustment to first grade: Contribu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positive mothering, and positive fathe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edison.

- 논문접수 4월 5일 / 수정본 접수 5월 24일 / 게재 승인 6월 10일
- 교신저자: 허청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cahuh@snu.ac.kr

Abstrac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to First Grade according to Latent Profiles of Home Environments

Hanjin Bae and Cheong-Ah Huh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home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nd to test their longitudinal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We used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th and 8th waves). The sample consisted of 986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t wave 7. Latent profiles analyses on the home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identified four profiles: vulnerable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good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normal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and normal relationship/vulnerable stimulation. Latent profiles were differe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adjustment to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result of regression showed that the children with vulnerable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normal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and normal relationship/vulnerable stimul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an the children with good relationship/normal stimulation.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home environment of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Keyword: home environment, school adjustment, latent profiles analyses